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자료 | 배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보도시점 2025. 05. 09.(금) 06:00 < 05.09.(금) 석간 > 배포 2025. 05. 08.(목)

통상교섭본부장, 지역 수출기업 대상 '미국의 관세조치와 대응 전략' 강연

- 경남 창원에서 '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설명회' 개최 -

- 지역 수출기업 관계자 백여명 참석해 美 관세 정보 청취 및 1:1 상담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'산업부'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9일(금)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'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설명회'에 참석하여, '미국의 관세조치와 대응 전략'을 주제로 강연했다.

산업부와 KOTRA는 글로벌 관세 및 통상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수집과 대체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12번에 걸쳐 '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'를 개최*했으며 이번 경남 지역 설명회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백여명이 참석했다. 정 본부장은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고위급 訪美 등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 노력과 함께 정부의 향후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.

* 대구/경북(2월말) 시작으로 전북, 대전·세종·충남, 경기 등 주요 지역 순회 개최 / 추후 미 관세정책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추가 개최 추진

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그간 '관세 대응 119'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*한 미국의 관세정책 현황 및 중국 정부의 대응 동향 등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. 이와 함께, KOTRA가 그간 '관세 대응 119'를 통해 접수한 상담사례를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사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:1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였다.

* 관세 대응 119 상담 세부내역(2.18~5.7) : 총 3,536건(관세확인 67%, 대체시장 발굴 7%, 생산거점 이전 4% 등)

정 본부장은 "정부는 '한-미 통상협의'를 통해 미 관세조치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"고 언급하면서 "이와 함께,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출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세 대응 119, 관세 대응 바우처 등 가용한 정책 수단도 모두 동원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"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	책임자	과 장	정승혜 (044-203-4030)
		담당자	서기관	김창완 (044-203-401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‘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설명회(창원)’ 개요

1. 행사 개요

○ **(목적)** 경남 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위해 美 **관세 정책 관련 정보 전달** 및 **1:1 컨설팅** 등 실시

○ **(일시·장소)** ‘25.5.9.(금) 10:00~13:30,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

○ **(참석자)** 통상교섭본부장, 경남 지역 수출기업,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백여명

2. 세부 일정

시간	주요내용	비고
10:00~10:40 (‘40)	모두 강연 (미국의 관세조치와 대응전략)	통상교섭 본부장
10:40~11:10 (‘30)	트럼프 2기 통상규제 정책과 중국의 대응	중국경영 연구소
11:10~11:30 (‘20)	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동향	관세법인 커스앤
11:30~11:50 (‘20)	관세대응 119 상담사례(FAQ) 소개	KOTRA
11:50~12:30 (‘40)	오찬	-
12:30~13:30 (‘60)	1:1 컨설팅	관세법인 커스앤